

분절출판(salami)

연구 기간과 방법이 동일하게 수행된 분절출판

3편(A, B, C)의 논문이 국외 국제학술지에 게재되었다. 3편은 연구대상(A 논문의 연구대상은 주요우울장애 정신질환자와 정상대조집단, B 논문은 양극성장애를 가진 조증정신질환자와 정상대조집단, C 논문은 정신분열증 환자와 정상대조집단)은 다르나 연구기간과 연구방법이 동일하고 유사한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중복출판에 해당하는가?

답변:

의학연구에서 연속으로 시행된 연구는 문제되지 않는다. 연속으로 작성된 경우 제1편에 계속될 연구를 예고하는 것이 좋고, 원칙적으로는 같은 학술지에 연속 게재하는 것을 권장한다. 그러나 이 사례는 동일한 연구계획 아래 얻어진 결과를 각각 다른 학술지에 게재하고 있어 한 연구를 세 개로 나눈 분절출판(salami)에 해당된다. 그러나 원고를 접수한 날짜가 상당 기간 차이가 나는 경우 다년간 연구의 연속결과물로 제출하기 위해 계획되었다면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 따라서 해당 학술지 편집위원회에서 확인 절차나 저자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만약 결과물을 나누어 제출한 의도가 있으면 이는 대상을 분할한 분절출판이다.

분절출판, 연구 대상의 범위가 다르나 일부 대상이 같은 경우

두 논문(A, B)는 같은 시기에 각각 다른 학술지에 투고 되었고, B 논문의 연구대상은 A 논문의 사용된 대상의 일부이다. 즉, 두 논문은 동일한 국가 연구자료에서 연구대상의 범위만 달리하고, 나머지 연구방법이나 결과는 동일하다. 각각 다른 결론이나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이 없으며, B 논문의 내용이 A 논문에 포함되어 있다. 두 논문의 책임저자가 동일하고, 접수일이 유사함에도 각각 논문의 공동 연구자의 소속이 다르다. 중복출판에 해당하는가?

답변:

B 논문은 A 논문을 부분 발췌한 분절출판이다.

분절출판, 동일 대상을 분석방법을 달리하여 결과를 보고한 경우

A 논문은 도플러가 질병을 예측하는데 경피산소압 검사와는 유용성이 있으나 CT 혈관조영술은 유용성이 없음을, B 논문은 분석방법을 달리하여 도플러와 CT 혈관조영술 모두 경피산소압 검사에서 유용성이 없음을 보고하고 있다. 즉, 두 논문(A, B)은 동일한 자료에 대해 분석방법을 달리 적용하여 다른 결론을 얻었음을 보고한 경우이다. 중복출판에 해당하는가?

답변:

두 논문은 “positive논문”을 “negative논문”으로 만들어 의학적 가치를 상실시킨 논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대상 환자와 검사방법 동일하고 그림의 일부 사진이 동일하다. 연구대상과 연구 방법이 동일하나 서론과 방법에서 이를 밝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두 논문은 분절출판이다.

동일대상에서 여러 결과가 확인된 경우

한 균주에서 항균제 내성 관련 효소가 5개 발견되었다. 일반적으로 한 효소의 정상 규명만으로도 하나의 논문이 되기에 이들 효소를 각각 나누어 보고할 경우 한 균주에서 발견되었기에 중복출판에 해당하는가?

답변:

중복출판의 기준 중 '한 균주에서 항균제 내성 관련 효소'라는 범위로의 동일 결과에 속한다. 비록 5가지 다른 효소가 발견되었으나 이는 각각 하나씩의 의미를 부여할 새로운 발견의 의미가 아닐 것이다. 따라서 5개 효소를 함께 묶어서 발표 되어야 가치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각각을 분리하면 분절출판과 나아가 내용의 표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참고로 연구에서 얻어진 자료를 출판할 때 고려할 것은 1) 결과를 하나의 논문으로 만들 수 있는 지, 즉 하나의 논문으로 작성할 경우 주제가 달라져서 어색한 논문이 되는지가 고려되어야 하고, 2) 독자에게 하나의 논문으로 지식을 제공하는 것과 따로 나누어 제공하는 것이 어느 것이 좋은 지가 고려되어야 한다. 한 개의 논문으로 작성 가능하고 한 번에 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좋은데 나누어 출판하는 것은 윤리적이지 못하다.